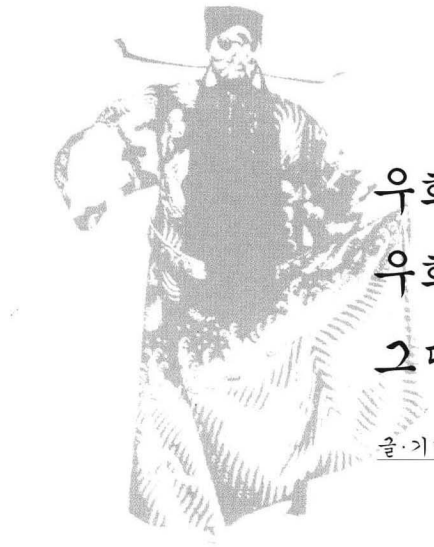


<패왕별희>라는 중국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전통 연희인 경극을 공연하는 배우들의 삶을 통하여 문화혁명 동안 전통예술이 어떻게 탄압 받았는가를 고발하는 한편 동성애에 빠진 한 배우의 비극적 파멸을 그려낸 영화였지요. 그 영화에서 여장한 남자배우로서 극중 극 속의 우희虞姬 역을 맡았던 장국영은 실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최근 높은 빌딩에서 투신자살하여 이 땅에까지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극 <패왕별희>는 패왕과 우희의 이별이라는 역사적 소재를 극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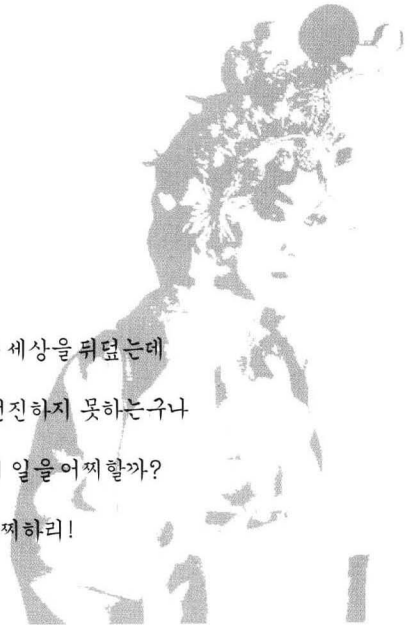
우희여!

우희여!

그대를 어찌하리!

글·기래완

力拔山兮氣蓋世 힘은 산을 뽑아내고 기개는 세상을 뒤덮는데
 時不利兮騅不逝 시운이 불리하여 추마가 전진하지 못하는구나
 騅不逝兮可奈何 추마가 나아가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할까?
 虞兮虞兮奈若何 우희여! 우희여! 그대를 어찌하리!



초패왕 楚霸王 항우(項羽 : 기원전 232 ~ 기원전 202)의

<역발산가 力拔山歌>입니다.

항우는 이름이 적籍이고 자가 우궈인데, 전국시대 말의 초나라 장군 항연項燕의 후손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용력과 재력이 뛰어났습니다. 일찍이 검술을 배우다가 칼을 내던지고 “나는 이따위 검술보다는 차라리 만인적萬人敵을 배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술은 한 명을 대적할 뿐이어서 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 병법(만인적)을 배우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찍부터 포부가 남달랐던 그는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흔들리는 때를 틈타 진승陳勝이 거병하자 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오중吳中에서 군사를 일으켜 호응하였습니다. 얼마 후 스스로 초나라 상장군上將軍이 되어 진나라 군대를 추騷격파하고 관중關中으로 진격하여 진나라 황제 자영子嬰을 살해한 뒤 함양宮咸陽宮을 불태워버렸는데, 그 불이 석 달 동안이나 탔다고 《사기史記》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는 스스로 서초패왕西楚霸王이 되어 제후들을 봉했습니다. 이 제 천하는 그의 것이었으나 그의 독단적인 논공에 불만을 품은 군웅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한나라 유방劉邦을 앞세워 그를 꺾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유방의 연합군에게 패하여 해하성垓下城에 포위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군사는 적고 군량마저 떨어졌는데 겹겹으로 포위한 연합군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며 심리전을 폈습니다. 항우는 놀라서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얻었던 말인가? 어찌 저렇게 초나라 사람이 많은가?” 하고, 비분강개하여 애첩 우희를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니 바로 천고의 비가悲歌인 <역발산가>였습니다.

그 에 게 는 진 정 산 을 뽑 아 낼 만 한 힘 과
세 상 을 뒤 덮 을 만 한 기 개 가 있 었 습 니 다 .

그러나 하늘이 그에게서 등을 돌려 검고 흰 털을 가진 그의 추마는 더 이상 진진하지 못합니다. 추마가 진진하지 못하니 이제 영웅에겐 패배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장부가 뜻을 세울 때 목숨이야 이미 초개에 불과했던 것.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사랑하는 우회를 어찌 해야 합니까? 역발산 기개세를 타고났으되 이제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켜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폐부를 저미는 그 비통함을 어찌 해야 합니까? _____ 향우의 슬픈 노래가 끝나자 우회는 울면서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韓兵已略地 한나라 병사가 이미 나라를 점령하여
四方楚歌聲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 들려오네
大王意氣盡 대왕의 의기가 꺾이었는데
賤妾何聊生 천첩이 어찌 살 수 있으리오

우 회 는 노 래 를 마 치 고
스 스 로 목 숨 을 끌 었 습 니 다 .

향우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뒤 마침내 말에 올라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탈출하였습니다. 오강吳江에 다다르니 정장亭長이 배를 대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말하기를 “강동江東은 비록 작으나 땅이 사방 천 리이고 백성의 수가 10만 명이니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왕께서는 급히 강을 건너십시오. 지금 신에게만 배가 있으니 한나라 군이 오더라도 건널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향우는 웃으며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는데 내가 어찌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내가 강동의 자제 8천 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와서 지금 한 사람도 귀환시키지 못하는데,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붙잡히 여겨 왕으로 삼는다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보겠는가? 설령 그들이 아무 말을 앓더라도 내가 홀로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고 목을 찢러 자결하였습니다. _____ 이 실패한 영웅을 대신하여 천하를 차지한 유방은 그의 고향 패沛 땅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몸소 축筑을 치며 춤추면서 “큰 바람 일어나니 구름이 날리도다. 천하에 위엄을 떨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디에서 맹사猛士를 얻어 사방을 지킬 거나大風起兮雲飛揚，威加海內歸故鄉，安得猛士守四方”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승자의 노래는 이렇게 다르지만, 지금은 그 승자 또한 먼 역사의 시간 너머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향우가 죽은 후 2천여 년 동안, 역대 지식인들은 그와 우회의 비극적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읊는 한편, 영웅의 실패에 대하여 신랄한 비평을 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만당의 시인 두목杜牧은 <제오강정題吳江亭>이란 시에서 “승패의 일은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데, 수치를 품고 참는 것이 진정한 남아라네. 강동의 자제들은 준제가 많은데, 권토중래를 미처 알지 못했는가?”라며, 향우를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은 <오강정> 시에서 “백전의 피로를 장사는 슬퍼하며, 중원의 한 패배로 형세를 만회하기 어려웠네. 강동의 자제들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군왕을 위하여 권토중래를 하겠는가?”라며, 영웅의 자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영웅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세상의 말은 이렇듯 구구합니다. 나는 다만 실패한 영웅이 남긴 천고의 비가를 읊조리며 그와 그가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멀리 구천에 한 잔 술을 올릴 뿐입니다. ☞

이 글을 쓴 기래원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 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泉詩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